

‘섬과 예술’의 융합을 통한 지역 활성화와 바다의 회복: 일본 세토우치 국제예술제 추진 사례¹⁾

김선희 | 국토연구원 녹색성장국토전략센터장

백경진 | 국토연구원 연구원

세토우치 국제예술제 개요

세토나이카이(瀬戸内海)는 일본의 시코쿠(四國), 혼슈(本州), 큐슈(九州) 등 3개의 큰 섬으로 둘러싸인 일본 최대의 내해다. 3천여 개의 섬이 흩어져 있으며 1934년에는 일본 최초의 국립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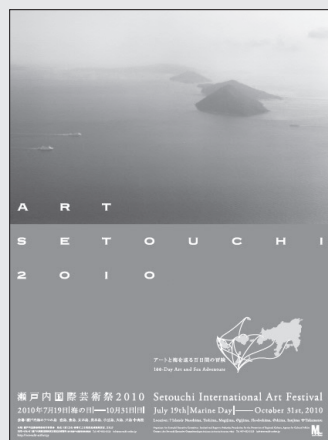
으로 지정된 바 있다. 세토나이카이는 고대부터 배 이동의 주요 항로로 사람과 물자, 그리고 문화가 오가면서 대륙 문화가 전해지는 루트로 활용되어온 중요 해상교통로다.

그러나 1960년대 일본의 고도 경제성장에 따라 연안지역에 공장 및 제련소가 입지하고, 이후 15년

〈그림 1〉 세토나이카이(瀬戸内海)의 위치



〈그림 2〉 세토우치 국제예술제 공식 포스터



1) 2010년 8월 29일~31일 동안 세토우치 국제예술제 실행위원회 사무국, 나오시마쵸(直島町)·도노쵸(土庄町)·쇼도시마쵸(小豆島町) 사무소의 관계자들과 현장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쵸(町)는 일본의 행정구역 단위 시정촌(市町村) 가운데 정의 일본어 표기임.

간 60만 톤의 산업폐기물이 불법 매립되었으며, 한센병 격리시설 등 혐오시설이 입지하였다. 또한 도시로의 인구유출과 고령화 등으로 지역의 활력이 저하되고 섬이 갖는 고유성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사회적 이슈와 환경문제 등으로 인해 세토나이카이 지역은 새로운 변화와 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2007년에 '섬과 예술'이라는 테마로 세토우치 국제예술제를 개최하기로 구상하고 실행위원회가 조직되었다. 3년 후인 2010년에 세토우치 국제예술제(瀬戸内國際藝術祭 2010)가 개최되었다.

세토우치 국제예술제는 다카마츠(高松)항을 거점으로, 죽기 전에 꼭 가 봐야 할 7대 관광명소로 알려진 예술의 섬 나오시마(直島)를 포함하여 데시마(豊島), 메기시마(女木島), 오기시마(男木島), 쇼도시마(小豆島), 이누시마(犬島), 오시마(大島)를 연계하여 '예술과 바다를 돌아보는 100 일간의 모험'을 주제로 7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개최되었다.

올해를 시작으로 앞으로 3년마다 열릴 예정인 트리엔날레(Triennale) 세토우치 국제예술제는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침체되고 있는 세토나이카이의 모든 섬이 활력을 되찾아 지구촌 곳곳에 희망을 주는 바다가 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섬들이 지니고 있는 매력과 예술의 조화를 통해 세토나이카이의 섬과 바다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고, '지역 활성화'와 '바다의 복권(復權)'을 지향하고자 하였다.

이 예술제에는 세계 미술계와 디자인계에서 추앙받는 일본의 안도 타다오, 한국의 이우환과 서도호, 프랑스의 크리스티앙 볼탕스키, 덴마크의 올

라푸르 엘리이슨 등 18개국의 아티스트 75명이 참가하고 있다. 예술제는 세토우치 국제예술제실행위원회(회장: 마나베다케키 가가와현 지사)가 주최하고 총무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관광청, 일본관광협회가 후원하고 있다.

예술로 7개 섬을 연결하여 '바다의 복권'을 꿈꾸다

세토우치 국제예술제에서 추구하는 '바다의 복권'은 예술과 결합된 건축물 조성, 고령자들이 대부분인 섬 주민들의 활력 증진, 세계의 예술성과 지혜를 한 장소로 모으는 기회 창출, 지역 고유의 민속 및 과거의 가치 제고, 예술제에 참여하는 세계인과의 교류, 다음 세대를 짊어질 아이들과의 관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특정 장소에서 전개되는 예술과 건축의 만남은 세토나이카이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사람과 자연, 그리고 예술을 통한 재생의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다.

주요 기본원칙은 ①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이는 것에 익숙한 세토나이카이 지역 섬들의 문화적 전통성 영위, ② 자연요소와 자연적 지형의 적극 수

〈그림 3〉 세토우치 국제예술제 개최지



주: 거점 항과 7개 섬을 연계하여 추진됨.

〈표 1〉 세토우치 국제예술제로 연계된 7개 섬의 개요

구분	인구(인)	면적(km ²)	섬의 특징과 예술제 포인트
나오시마	3,400	7.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1, 2006년 나오시마 스탠다드전 개최 • 안도 타다오가 설계한 지중미술관과 베네세하우스, 빈집을 예술품으로 변화시킨 아트하우스프로젝트
데시마	1,000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최대 산업폐기물 불법 투기사건 발생 • 데시마미술관 및 빈집을 이용한 신토불이 레스토랑
메기지마	197	2.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풍 · 방파용 오테(3~4m 높이의 돌담) • 모모타로의 전설이 접목된 도깨비동굴
오기지마	200	1.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지가 거의 없어 산자락에 민가 입지 • 등대자료관과 파블라반딧불 서식지
쇼도시마	32,000	153.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토나이카이에서 아와지시마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섬 • 100년 전 일본에서 처음 올리브 재배에 성공한 올리브섬 • 농촌 가부키 정기적 공연
오시마	—	0.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 한센요양소가 입지해 차별적 시각으로 인해 강제 격리됨 • 2008년부터 요양생활 지원과 개발활동이 진행됨
이누지마	60	0.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누지마 제련소를 배경으로 한 이누지마 아트프로젝트 실시, 제2의 나 오시마라고 평가됨
다카마츠 (거점항)	420,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카마츠항 보수 및 철도 부설 등으로 '시코쿠의 현관'으로 자리매김함. 세토나이카이를 이어주는 중요 연결고리

요, ③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 확대, ④ 빈터 및 빈집을 활용한 예술작품 창출, ⑤ 도보와 버스 이동을 권장하는 기존 인프라 활용, ⑥ 연육교 등의 빠른 연결성 · 접근성보다는 바닷길을 이용한 섬 이동 확대다.

세토우치 국제예술제는 7개 섬마다 지역여건에 따른 다양한 프로젝트가 적용되는데, 특별히 나오시마, 데시마, 쇼도시마, 이누지마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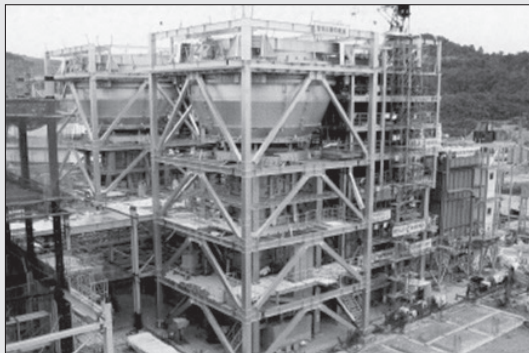
1. 나오시마

나오시마는 1905년 동양 최대의 동 · 구리를 주조하는 미즈비시 나오시마 제련소가 입지하면서 기

업을 중심으로 마을이 발전하는 전형적인 기업마을 모형이 되었다. 그러나 공장의 수출 감소와 기계화 · 전산화로 섬 인구가 8천 명에서 3천 명으로 감소하였고, 섬의 재정자립도도 약해졌다. 또한, 산업폐기물이 쌓이면서 나오시마 고유의 자원성도 퇴색되었다.

이에 후쿠다케재단에서 현대 예술을 결합한 리조트 개발의 일환으로 베네세하우스 건설에 착수하였고, 데시마섬의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이 기존 제련소 자리에 입지하면서 '환경과 예술의 섬, 나오시마'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특별히 일본 건축가 안도 타다오를 영입한 지중미술관은 나오시마의 아름다운 능선을 해치지 않고, 자연광을 통해 미술관 내부를 활용한 특수성으로 탁월한 시너

〈그림 4〉 데시마의 산업폐기물(좌), 나오시마의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우)



지 효과를 창출하였다.

후쿠다케 재단은 베네세하우스의 후속으로 혼무라(本村)지구의 빈집과 빈터에 이에(家) 프로젝트를 발전시켜 지역의 낙후성과 재생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2001년과 2006년에는 나오시마 자체적으로 스탠다드전을 실시하였고, 2009년 한 해 방문객은 36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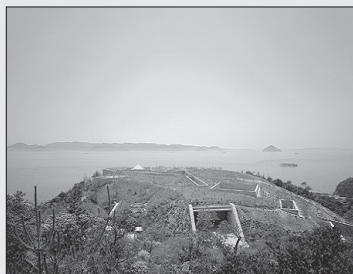
현재는 소규모 폐경지를 활용한 코메(米) 프로젝트를 실시, 경관은 지역을 만들어 농촌 풍경을 방문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후쿠다케재단 직원들에 의해 시작된 코메 프로젝트는 지역주민에게까지 전파되었다.

중앙정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 없이 나오시마가 세계적인 예술 섬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후쿠다케재단의 후쿠다케 소이치로(福武總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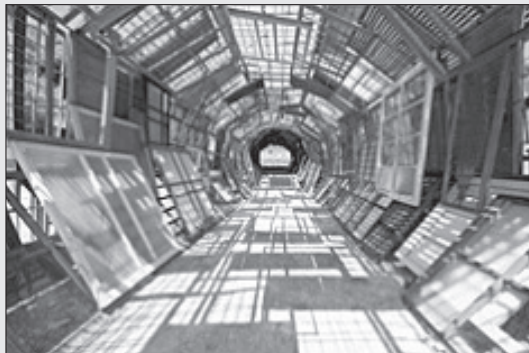
郎) 이사장의 리더십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의 리더십은 환경사회적인 섬 발전 모델에 대한 확고한 비전, 예술가 선별과 영입에 대한 탁월한 예술적 안목, 미술관 및 리조트 건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나오시마쵸(町) 행정의 기본방향이 대단위의 소비적 레저 시설로 인한 관광수익이 아닌 건전한 건강·문화적인 개발을 목표로 하였기에 섬의 발전방향 설정에서 후쿠다케 재단과 동일한 비전으로 적절한 공조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가치관과 철학은 2010년 세토우치 국제예술제에도 전수·전달되었다.

지역주민들은 주체적으로 세토우치 국제예술제의 수익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차 대접, 꽃꽂이 체험, 영어회화 및 안내봉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쵸(町)에서 비용의

〈그림 5〉 나오시마의 예술작품



〈그림 6〉 데시마의 예술작품



50%를 지원하고 있다.

나오시마의 장기 마을발전계획은 폐기물 처리, 재단과의 예술사업, 관광객 유치 등 다각적인 경제기반 마련을 통해 농촌과 섬 지역이 갖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2. 데시마

데시마섬은 행정구역상으로 쇼도시마섬의 북부지역과 함께 도노쵸(土庄町)에 위치한다. 도노쵸는 ‘도노쵸 르네상스 10년 계획(2003~2012)’을 수립하고, 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규모 증가를 목표로 두고 있다.

데시마는 서일본 최고의 패총이 남아 있어 9천여 년 전에 이미 사람이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천여 년 동안 석재암이 주요한 기간산업으로서 유지되었으며, 데시마석은 서일본 각지에 있는 궁의 석등 등으로 애용되었다. 물과 숲이 풍부하여 섬 지역에서 드물게 벼농사가 발달하였고, 계단식 논도 많이 분포하고 있다.

반면 일본 최대의 산업폐기물 60만 톤 불법 투기사건이 데시마 서부지역에서 발생하여 일본의 환경문제 중 폐기물 처리 정책설정의 중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현재 폐기물은 나오시마로 해상 수송되어 무해화 처리되며, 현재 60% 정도 진행되었다.

설치된 예술품은 예술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예정이므로 방문객을 위한 교통인프라, 정보안내, 유지관리, 재정지원 등의 문제를 연구 중이다. 후쿠다케재단에서 투자하고, 건축가 니시자와 류에가 설계한 데시마미술관이 올해 10월 건립되어 지속적인 예술 섬으로 변모해가고 있다.

3. 쇼도시마

세토나िका이에서 두 번째로 큰 섬으로 내해에서 가장 높은 산인 호시가쵸산이 위치함에 따라 지형적 기복의 영향으로 자연경관이 아름답다. 또한 농촌 가부키가 성행하여 상설공연을 하는 무대가 있다.

쇼도시마는 1950년대 인구 6만 명의 큰 섬이었으나 현재는 3만 2천 명으로 인구감소를 절실히 경험하고 있다. 섬 지역의 경우 도시로의 유출이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섬 지역으로 되돌아와도 일자리가 없어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이 지속가능하지 못한 실정이다.

〈그림 7〉 쇼도시마 농촌가부키무대(좌)와 예술작품(우)



쇼도시마초의 관계자들은 예술제를 통해 인지도가 제고되어 향후 귀농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섬이 갖는 근본적인 문제점과 한계를 예술제가 해결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다른 섬들과 달리 섬의 1, 2, 3차 산업 진흥에 대한 계획을 개별적으로 수립하고 있다. 특별히 I턴자 유치를 위해 빈집은행, 농촌생활체험, 올리브 생산 체험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다.

쇼도시마는 세토나이카이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예술가촌을 조성하여 2009년 봄·가을과 2010년 봄 세 차례에 걸쳐 ‘쇼도시마 AIR 아트프로젝트’를 개최하였다. 면적이 큰 섬의 장점을 살려 각 지구별 특색을 살린 정책을 제시하였다.

쇼도시마는 예술제 기간 동안 현과의 연계정

책, 지역 이미지 향상, 주민의 자신감 고조 등 여러 효과를 통한 지역 활성화 발전방향에 대한 희망찬 기대감을 갖고 있다.

4. 이누지마

이누지마섬은 개가 웅크리고 앉은 형상을 한 바위가 위치하여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 이누지마 미카게라는 화강암 산지로 유명하여 오사카, 에도 등의 성곽 및 항구 초석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1909년부터는 이누지마 제련소가 운영되어 섬 인구가 3천 명이 될 정도로 전성기를 보내기도 하였으나 제련소 폐쇄와 채석업의 쇠퇴로 인해 인구가 1/50로 감소하였다.

〈그림 8〉 이누지마 주거지역(좌)과 제련소 터(우)



이누지마의 제련소 터는 일본 근대화 산업 유산군 중 하나로 이를 보존하고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는 시설로 재건하여 2008년에 '정련소'라는 이름으로 공개되었다. 이누지마 아트 프로젝트는 이누지마를 '제2의 나오히마'로 불리게 만들었다. 이누지마 전체를 '유산, 건축, 현대 아트, 환경'을 통한 새로운 지역창조의 모델로서 순환형 사회를 생각한 프로젝트로 볼 수 있다.

섬의 새로운 부가치 발견과 성공요인

세토나िका이는 섬들을 오가는 선박을 통해 항상 새로운 문화와 생활양식을 받아들여 왔다. 이 지역의 7개 섬을 예술과 결합하여 예술제를 개최함으로써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섬 발전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방문객은 개최 한 달 만인 8월에 25만 명, 9월에 40만 명, 10월 말에는 60만 명으로 급증하여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

이의 성공요인으로는 ① 후쿠다케재단 이사장과 가가와현 지사의 리더십, ② 섬과 예술의 결합에 대한 시대적 트렌드 적중, ③ 섬의 지리적 네트워크, ④ 공항·항만·열차가 용이하게 연계되는 입지적 여건, ⑤ 섬만의 고유 가치, 섬에 대한 로망, 섬이 갖는 잠재력 등이라 할 수 있다.

■ 리더십

세토우치 국제예술제실행위원회의 회장이자 가가와현 전 지사인 미나베 다케키는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사람들이 교류하며 함께 공존해왔던 세토나िका이에 활력을 불어넣고, 세토나िका이가 지구촌 모든 지역사회의 '희망의 바다'가 되었

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세토우치 국제예술제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밝히면서 이미 2010년 2월에 가가와 세토우치 아트 관광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현대 미술가, 건축가, 섬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만들어낸 예술작품은 일상생활 속에 새로운 발견을 선사하며, 전 세계로부터 사람들을 불러들여 지역사회와 세계를 연결하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는 꿈과 비전을 주창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2004년부터 권역 내에서 지역주민이 주최가 되는 '마을한 바퀴 걷기' 등 '마을 만들기형 관광' 등을 조직·운영해 왔고, 2008년에는 민간조직 '100만인 러브레터추진협의회'를 설립하여 가가와현의 매력을 재발견하는 등 상향식(Bottom-up) 접근과 노력을 계속해 왔다. 그 결과 지역주민 주체·참가 체험형, 지역 밀착형 상품 개발 등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 또한 나고야조형대학교, 오사카예술대학교 등 세토우치 국제예술제에 참가·협력하는 대학교와 예술가 서포터 등의 교류·연대 등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있다.

이번 세토우치 국제예술제 추진을 위해서는 '가가와 체재형 관광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매력적인 숙박시설 정비, '바다·도시·마을'을 연결하는 관광 콘셉트 개발, 교통 및 이동의 편리성 확보, 관광 안내 및 정보 제공, 외국인 인바운드 대책 등을 마련하는 등 행정의 리더십을 십분 발휘하였다.

민간 차원에서는 종합 프로듀서인 후쿠다케 소이치로의 리더십을 들 수 있다. 그는 재단법인 나오히마 후쿠다케미술관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1987년부터 나오히마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가가와현의 나오히마를 자연과 예술로 활성화시키려

는 사업을 전개해 왔다. 이로 인해 1998년 ‘베세나 국제상’을 수상하고, 2004년 베네세 아트사이트 나오시마에 지중미술관을 설립하였으며, 2006년에는 나오시마에서 펼친 지속적인 예술 활동을 인정받아 ‘베세나 대상’과 ‘가가와현 문화공로자 표창장’ 등을 수상하였다.

■ 시대적 트렌드

세토우치 국제예술제는 ‘섬과 예술’의 결합, ‘海·都市·里’라는 자원의 연계·융합을 기본으로 하는 ‘세토우치 아트’를 창조하여 새로운 문화 트렌드와 새로운 지역재생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대 예술과 연안도시부의 미술관과 건축물, 그리고 섬 고유의 전통미 등이 ‘海·都市·里’ 바다의 예술·문화자원으로 집대성되어 많은 예술 애호가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새로운 트렌드를 창조해냈다.

이는 문화·여가 르네상스 시대의 도래, 첨단 지식산업과 문화·과학기술의 융·복합화라는 시대적 트렌드와 부합하여 ‘지역활성화와 바다의 복권’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내고 있다.

■ 섬의 네트워크

국제적인 현대 예술의 대명사인 나오시마섬뿐만 아니라 인근의 6개 섬 및 다카마츠항 주변을 연계하여 ‘예술과 바다를 돌아보는 100일간의 모험’을 주제로 섬의 연결망을 도모한 점을 들 수 있다. 섬을 돌아보면서 경험하는 섬 각각의 고유한 매력은 예술의 의미 부여를 제외하고라도 세토나िका이의 섬과 바다의 매력을 알리는 데 충분하고, 섬 네트워크 형성이 결국 역사·예술의 조화를 통해 세토우치 국제예술제의 성공적 개최를 견인하였다.

■ 공항 - 항만(Airport - Seaport)의 결합

세토우치 국제예술제 개최지로 이동하는 데 육로 접근뿐 아니라 하늘 길을 통한 접근도 용이하도록 하였다. 다카마츠공항과 다카마츠항을 연계하여 해외에서 섬 인근까지 인지거리를 단축시켰다.

또한 세토나िका이지역은 예로부터 바닷길을 통해 새로운 문화와 생활양식이 교류하면서 사회문화적·경제적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이동이 용이한 연육교를 선택하지 않고 쾌속정을 통해 7개 섬과 다카마츠항을 연결하여 섬에 대한 로망과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다. 항만 관계자 및 기관 등과 연대하여 기존 항로 증편과 신규

(그림 9) 다카마츠항(좌)과 다카마츠시 전경(우)



항로 개선을 실현하였다. 예술제 기간 동안에는 7개 섬 18개 항구에서 20개 항로, 총 205편이 왕복하고 있다. 또한 10월 예술제 막바지에는 추가 인원을 위해 항로 증편을 하기도 하였다. 섬의 고립성을 살리되 교통과 이동의 편리성을 향상시키는 협치를 통해 향후 이 지역으로의 이동을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섬에 대한 로망

‘그 섬에 가보고 싶다’고 하는 섬에 대한 로망과 ‘마음의 고향’에 대한 귀향 본능이 7개 섬을 연결하는 세토우치 예술제의 콘셉트와 맞아떨어졌다. 섬의 매력, 섬과 예술의 결합에 의한 무궁한 잠재력 표출 등이 상승 작용하여 섬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극대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시사점

세토우치 국제예술제는 가가와현 및 각 초(町), 아트디렉터, 건축 및 예술가, 후쿠다케재단의 면밀한 상호 협조 속에 주민의 든든한 지원으로 인해 성공할 수 있었다. 특히, 참여 조직·단체 리더들의 예술과 환경에 대한 일정한 가치관과 수준 유지, 원활한 지역관계를 유지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예술제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하였다.

섬이라는 물리·자연 자원이 리더십·파트너십의 인적 자원, 그리고 예술과 건축의 콘텐츠 자원과 결합하면서 섬의 새로운 활력과 활성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한센병 환자 격리지인 소록도에서 최근 국악 관현악단의 공연이 열려 섬 주민들에게 큰 감동을 준 바 있다. 한센병 환자 격리지인 데시

마가 예술섬으로 재탄생하였듯 우리나라 섬에도 예술을 입히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때마침 정부는 지난 6월 ‘명품섬’ Best 10을 선정하여 ‘역사·문화, 자연과 생태, 건광과 웰빙’ 등을 테마로 누구나 찾고 싶은 명품섬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도로·선착장 등 하드웨어를 강조해온 종전의 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각 섬이 갖고 있는 고유한 콘텐츠와 어메니티 자원을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신(新) 해양관광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뉴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한국형 명품섬 조성에 기대를 걸어본다. ☺

참고문헌

- 北川フラム・瀬戸内国際芸術祭実行委員会. 2010. 瀬戸内国際芸術祭 2010公式 ガイドブック.
香川滞在型観光推進協議会 香川県. 2010・7. 香川せとうちアートの楽園 新潮社
秋元雄史, 安藤忠雄 ほか. 2010・7 直島瀬戸内アートの楽園. 新潮社.
<http://setouchi-artfest.jp>.
<http://www.town.naoshima.lg.jp>.